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前號에서 계속〉

I. 발명인의 길

7.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이는 모든 일과 사물에 관심이 있어야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말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아이디어는 자기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나온다. 일상생활과 전혀 관심없는, 전혀 관계없는 대상은 문제 밖이다.

기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기계의 아이디어가 나올리는 만무하다. 비록 아이디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엉터리에 지나지 않거나 초보자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계인의 눈에는 그런 생각은 아득한 옛날에 졸업해버린 아이디어인 것이다.

이것을 다시 생각한다면 자기의 생활에 대한 마음가짐에서 아이디어가 이끌어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더 좋은 인생을 바라고, 더 좋은 생활을 찾는 곳에 아이디어는 태어나며, 그런 현실성에 하나의 희망을 결합시키지 않으면 아이디어는 결코 태어나지 않는다.

아무래도 좋다는 무기력한 마음가짐에 빠진 사람은 몸은 살아 있지만 정신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들의 주변에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때까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로 가득 차 있다.

8. 발명을 위한 모방만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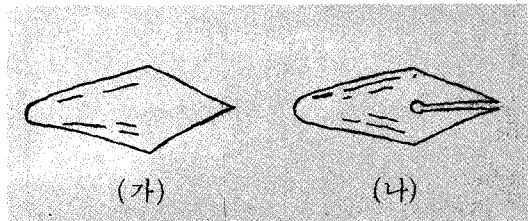
54세까지 보험 외무사원이었던 미국의 워트만은 펜촉의 개량 발명으로 세계적인 만년필왕이 되었다.

워트만은 보험 계약실적이 부진하여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한달에 한 두건의 계약이 고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큰 계약이 한건 이루어져서 서명을 하려는 순간 잉크가 뚝 떨어졌다.

그것이 불길하다고 다 된 계약이 깨져버리고 말았다.



당시의 펜촉은 (가)와 같았기 때문에 잉크가 잘 떨어지곤 했다.

그는 너무 분하여 보험 외무사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모양의 펜촉 발명을 시작했다.

수 많은 펜촉을 사다가 밤낮으로 가위와 줄을 이용하여 새로운 모양의 펜촉을 만들었다.

그러나 잉크가 떨어지지 않는 펜촉은 생각처럼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의 연구는 한달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펜촉의 가운데에 홈을 내고 구멍을 뚫은 (나)와 같은 펜촉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 펜촉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글씨가 잘 써지고, 잉크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즉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다.

“

우리는 아이디어 소재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그때 그때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하고
연구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하겠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우리 모두 발명인이 되자.

”

그리고 그날부터 자신의 특허품 펜촉을 아내와 함께 만들어 친구의 문방구점에 판매를 의뢰했다.

그의 펜촉은 날개 돌힌 듯 팔려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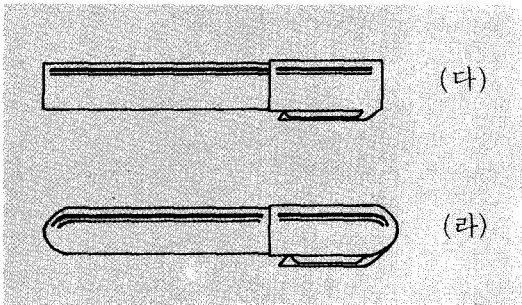
2년후에, 특허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그는 이미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어있었고, 계속 많은 돈을 벌어들여 일약 세계적인 만년필왕으로 부상했다.

한편, 지금은 ‘파카’하면 세계 제일의 만년필 회사로 손꼽히고 있지만, 처음에는 공작기계 한대로 겨우 5~6명이 만년필대를 만드는 보잘 것 없는 회사였다.

워트만과 같은 시대의 사람인 파카는 모방으로 세계적인 만년필 회사를 이뤄놓았다.

당시 물품 모형의 유행은 유선형이었다.

비행기와 자동차까지도 유선형이 채택될 정도로 대 유행이었다.



파카는 이때 유선형을 만년필대에 채택하면 어떻까하는 생각을 했다.

당시의 만년필대는 (a)처럼 위아래가 막대 모양이었다.

파카는 이것을 (b)처럼 끝을 둥글게하여 의장으로 출원했다.

성공이었다. 파카는 이 의장 하나로 오늘날

세계적인 만년필 회사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때부터 발명광이라 할 정도로 발명에 몰두하여 만년필에 관한 한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었다.

펜촉과 만년필대에서 보았듯이 발명이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국민학교 어린이도 할 수 있다.

9. 경제적인 발명을 하자

발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발명인은 누구이며, 그 발명품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같이 보통 사람들 이었으며, 발명품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콜롬부스의 달걀’ 같은 것이었다.

먼저 외국의 경우를 보자.

생쥐를 보고 고안한 미키마우스는 가난한 월트 디즈니를 억만장자로, 쌍소켓트를 발명한 기능공 마쓰시다는 마쓰시다(松下) 그룹 회장으로, 여자친구의 주름치마에 가려진 엉덩이를 보고 발명한 코카콜라병은 18세 공원이었던 루드 청년을 6백만불의 사나이로 변신시켜 놓았다.

이번에는 국내의 경우를 보자.

수세미를 보고 발명한 이태리타월은 가난한 K씨를 억만장자로, 꽃주머니끈을 보고 발명한 스피드 군화끈은 신문기자인 A씨를 세계적인 발명인 겸 (주) B트레이딩 사장으로, 3년전 유압장치의 원리를 이용하여 발명한 자동차 전환장치는 기능공 K씨를 6억원 (일본의 가네자와 타이어에서 로열티(특허권 사용료)로 받음)의 사나이로, 종래 방수제를 개량 발명한 회사원 Y씨는 J방수기업(주)의 사장으로 변신시켜 놓았다. <계속> <王然中 記>